



예수님은 왜 아직까지 안오시나?

윤상학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는 2천 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계신다.
예수님은 왜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시는가?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예수님은 왜 아직까지 안 오시나?

발행일 2017년 7월 16일

지은이 윤상학

발행처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홈페이지 <http://ieden.kr>

문의할 곳 info@ieden.kr

Copyright 2017.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조건 하에서 자유 배포를 허용함.

SBN 979-11-86212-10-3 05230

비매품

성경 구절 인용은 개역한글판 (1961)을 사용하였음.

여호와

|

예수

|

이긴자 (제2감람나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목차

1. 성경의 비밀 5
2. 기독교의 한계 10
3. 다니엘서의 세 존재 16
4. 인자 같은 이와 마지막 때의 추수 19
5. 이기는 자와 언약 23
6. 예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35
7. 감람나무의 상징, 여호수아 39
8. 감람나무의 상징, 스룹바벨 44
9. 감람나무의 그림자, 모세와 엘리야 49
10. 강 좌우의 두 사람과 세마포 입은 자 52
11. 아브라함, 이삭, 야곱 57
12.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님의 섭리 62
13. 제2감람나무 77
14. 이영수 총회장의 영적 체험 81
15. 하늘 군대 90
16. 사망과 부활 102
17. 천국과 지옥 113
18. 글을 마치며 120

1. 성경의 비밀

성경은 많은 비밀을 담고 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신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는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계 20:10).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마귀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드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실 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다 (창 17:16).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치셨다 (왕하 17:23, 2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다 (창 3:24).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창 6:5-7).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삼상 15:11).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을 하실 수 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그들을 죽인 것이나 (왕상 18:40), 기드온이 3백 명의 군사만으로 수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것이 그 예이다 (삿 7:22).

하나님의 능력이 크실지라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실 수 없다. 죄에 대하여 벌을 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따르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마귀와 싸울 군병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 쫓겨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되찾고자 하신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들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요일 3:8). 그래서 우리 안

에 있는 죄가 소멸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죄를 씻을 방법을 찾으셨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죄악은 커져만 갔고, 결국 노아 때에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고 모두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셨으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다시 죄악에 빠져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죄를 씻을 방법을 강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야곱의 12 아들은 애굽에 이주하여 400년을 지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장차 마귀와 싸울 하늘 군대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키우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병을 배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어르고 달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일부를 남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는데, 이들이 유대인이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도 유대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려고 오셨으므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한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고자 무던히 애를 쓰셨지만 결국 저주를 내리셨다 (마 23:37-38).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을 만드셨다 (슥 13:1).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신 후, 그의 제자들은 온 땅에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사 49:6). 그런데 12제자들은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방 전도를 위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왔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온 세상에 기독교가 전해졌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 그러고도 3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

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은 하늘에 가셔서 새롭게 알게 되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되셨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역사를 지상에 세우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할 존재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나무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 11:3-5).

이 책은 감람나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정하신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셨던 일이며, 그도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다.

이 책은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들을 소개하며 더불어서 마귀를 잡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완성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사망과 부활의 의미를 밝히며,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2. 기독교의 한계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다.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셨다. 그 결과로 죄를 씻는 샘이 열렸다 (슌 13:1).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됨을 전파하여 기독교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되어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가면서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감도 커져갔다. 그 결과,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이미 제자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다시 계시를 주셨을까? 그 배경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다시 오시는 시점은 바로 제자들이 살아 있는 당대다 (마 16:28, 24:34). 그래서 제자들은 당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으며, 심지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속히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계 22:20). 그런데도 예수님은 2천 년이 지나도록 오지 못하고 계신다. 왜 못 오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마 24:31).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하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당시에,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이 만들어지면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으로 아셨다. 그리고 그 일이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아셨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받으신 이후다 (계 5:7). 그 책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계 5:3). 예수님께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은 “이기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를 지는 사명

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다 (계 5:5).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책을 보신 일이 없으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다 (요 17:5, 1:3).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알려주시지 않은 비밀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은 그 사실을 계시록 서두에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 1:1)

위 말씀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95년경이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로 알게 되신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30세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행 1:4).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행 2:1-4).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에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계시록이 쓰이기 전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은 계시록의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그 책을 받으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책을 주신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시록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계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마귀를 잡는 것이다 (계 20:10). 문제는 마귀도 성경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없었다.

계시록뿐 아니라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상을 본 선지자들도 그 이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선지자였는데, 자신이 본 이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천사에게 그 일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단 12:8). 그런데 천사는 그에게, 그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하였다 (단 12:9). 그 장면은 예수님과 두 감람나무에 관한 것이었다.

또 스가랴 선지자도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이상을 보고,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하였다 (슥 4:4). 그러자 천사가 그 이상과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스투바벨과 성전 건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스가랴는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을 하였다 (슥 4:11). 천사는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지만 (슥 4:14).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은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지서들에는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계시를 본 선지자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럴 것이 라면 알려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다. 계시록의 내용은 이루어질 때가 있으며, 그때에는 그 일을 이룰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가 예언되어 있다 (계 11:3-5). 두 감람나무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언되어 있다 (슥 4:11-14).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에 대해 아셨다면 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마 16:28).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예수님 이후 2천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후에 알게 되셨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다.

3. 다니엘서의 세 존재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감람나무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구약 성경 중에 감람나무가 직접 언급된 성경은 스가랴서이지만, 앞으로 설명을 들으면, 창세기부터 스가랴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예언들이 감람나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중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세 존재를 소개한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며
(단 7:13)

여기에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온다. 이들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인자 같은 이”를 예

수님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로 알 수 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단 7:22)

이 구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곧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인가? 이들은 하늘 군대로, 대부분 순교자들이다.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켜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마귀의 세계인 음부에서 구조될 수 있으며,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에서 구원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럼 위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인가? 그 답은 계시록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등장하였다 (계 6:9). 그때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원한을 갚아주시느냐고 질문을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교자가 더 배출되어야

원한을 갚을 수 있다고 하셨다 (계 6:11). 이렇게 순교자, 곧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요 17:5).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곧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준다고 하였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4).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예수님의 별명으로 쓰이고 있다 (마 9:6).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과 방불한 권세를 가진 존재를 말한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보셨지만,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셨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던 것이다 (마 24:30, 26:64).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존재다. 그는 누구인가?

4. 인자 같은 이와 마지막 때의 추수

다니엘서를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곧 예수님께서서 “인자 같은 이”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책을 보시기 전에는 알지 못 하셨던 것으로, 그 책을 보신 후, 예수님은 그 존재에 대해 알려 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 2:26).

따라서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와 계시록의 “이기는 자”가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기는 자”가 등장하기를 바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토록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일까? 그 내용은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계 14:14).

다니엘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다. 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는데, 이것은 그가 추수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땅에서 곡식이 다 익으면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그에게 추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게 된다 (계 14:15-16). 다 익은 곡식, 곧 알곡은 하늘 군병을 뜻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늘 군대를 만들어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그 뜻을 지상에서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인자 같은 이”, 곧 “이기는 자”이다.

그가 추수를 마치면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 수 있게 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도 같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다 (계 2:27).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은 시편에 나와 있다 (시 2:7-9). 이 시를 보면, 그 내용이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저

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천 년 전에 쓰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같은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순교자들이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들의 수가 더 차야 한다고 하셨다 (계 6:11). 그 수는 144,000이다. 이 수를 완성하는 존재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곧 이기는 자이다. 이 수가 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마 24:31). 이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늘 군병들로, 장차 천국에서 왕이 될 자들이다. 그 수가 완성된 후의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1).

이 구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6천 년 전부터 이 군병들을 만들어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 군병이 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오셨다. 그리고 2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서 이들을 만들어오고 계신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144,000 중에 남은 수를 완성시키는 사명, 곧 마지막 추수하는 사명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알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셨는데, 그때가 95년이다. 기독교의 기초를 만드신 분들이 12 사도와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계시록이 쓰이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존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이기는 자와 언약

앞에서 계시록을 알려주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마귀를 잡는 비책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할 존재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계 2:17).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계 2:26).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비밀의 책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감람나무에 대해 알게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감람나무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감람나무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 권세를 주겠다고 알려주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감람나무로 쓰시기 위해 믿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셨다. 감람나무가 둘이므로, 이기는 자도 둘이 필요하다.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언약이 여덟 가지가 나온다. 그 중 일곱 가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대개, “이기는 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언약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긴자는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계 2:26),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시게 된 것처럼, 그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계 3:21).

계시록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씩 살펴보자.

생명나무의 과일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곧 에덴동산에 있는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생명과일을 먹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쫓

아내셨다 (창 3:22). 그러므로 죄인은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것과 같다. 죄가 없어야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인류 최초로 죄 씻음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긴자 이전에는 지상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순교자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다.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생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씻긴다고 여긴다. 12사도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나눠 줄 존재가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셨다 (계 21:6-7). 결국 예수님께서서 2천 년 동안 누구에게도 직접 생수를 주신 적이 없다. 이긴자가 나와야 그의 죄를 먼저 씻어주시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죄를 씻도록 생수를 전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기독교의 혁명이다. 누구든 죄 씻음을 받기 원한다면 이긴자를 찾아와야 한다.

둘째 사망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11)

둘째 사망은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 (계 21:8).
그러므로 이긴자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
실 이긴자는 심판할 자, 즉 하늘 군병들을 만드는 존재다. 대부
분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하늘 군병들은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심판 권세를 받게 된다 (계 20:4). 그러므로 이긴자는 둘째 사망
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위의 새 이름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
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
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7).

이 언약에서, 이긴자는 두 가지를 약속받았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6:49-51, 53).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후 그 제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죄를 씻을 생명수를 마셔야 함을 가리킨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요일 3:8), 사망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롬 5:12). 따라서 죄를 씻을 생명수를 받지 못하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을 떠날 때 마귀에게 끌려가 음부로 가게 되며 (계 6:8), 마귀 멸망 후에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계 20:13).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지 못한 자는 마귀와 싸울 군병이 될 수 없다.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순교자들 중 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지상에서 직접 죄를 씻어주시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이루신 “감추었던 만나”를 이긴자에게 약속하셨다. 따라서 이긴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보혈, 곧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죄 씻음을 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은 “흰 돌”을 주신다는 것으로,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있고, 그 내용은 받는 자만 아는 비밀이다. 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마 21:42).

예수님은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있다고 하셨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계 3:12 참조), 이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계 19:12-13).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늘 군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기는 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 다음에 나오는 구절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그가 사명을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26-29)

이긴자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것이다 (시 2:7-9). 만국은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심판 후에 144,000 군대의 왕국에서 살게 되므로, 이긴자가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그가 144,000의 왕국을 지배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즉, 144,000명의 왕들이 그의 수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신다는 새벽 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계 22:16). 이것은 이긴자가 하늘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 추수하는 역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실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 알현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흰 옷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 인사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5-6)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시는 흰 옷은 세마포를 의미한다. 세마포는 하늘 군병들이 입는 옷이다 (계 19:14). 이긴자도 하늘 군병 중 하나가 되므로 세마포를 입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흐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책으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의 기념책”으로 불렸다 (말 3:16). 모세도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셨다 (출 32:32-33).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긴자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의 죄를 씻어주신 후에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

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또 이긴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사를 시키게 된다. 그곳에는 천사장들인 네 생물이 있다 (계 4:6).

하나님 성전의 기둥

예수님은 이긴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세 가지를 기록하겠다고 하셨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2-13)

예수님은 이긴자를 성전 기둥으로 삼으신다. 이것은 이긴자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섭리다. 이긴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 해야 할 사명을 받는다.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계 21:9-10).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 군병들을 말한다 (계 19:7-8, 14). 그러므로 이긴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하늘 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하늘 군병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추수하는 사명이다 (계 14:14-16).

셋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곧 예수님께서 새로 알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알게 되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계획을 이긴자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21-22)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긴자에

게도 장차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긴자는 장차 천국 백성들로 이루어진 144,000의 왕국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긴자는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할 엄청난 인물이다. 그는 감람나무다.

생명수 샘물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6-7)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계 22:1).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

는다. 하나님께서는 이긴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해주신다.

6. 예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긴자는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추수하는 사명을 받는 존재다. 이긴다는 것은 그 사명을 받을 자격을 말한다. 믿는 자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할 존재의 명칭을 정해두셨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감람나무가 필요함을 아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감람나무의 일을 맡겨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감람나무는 둘이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나누어서 알려주신 것이다. 첫 감람나무는 감추었던 만나만 받

으며, 둘째 감람나무는 흰 돌에 기록된 말씀도 받는다.

첫 감람나무는 감추었던 만나, 곧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한다. 둘째 감람나무는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추수하는 사명을 한다. 따라서 낮을 들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둘째 감람나무를 뜻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사명을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서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두 감람나무와 순금등대를 보았다. 그때 그는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천사에게 질문을 했다. 천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는 자니라 하더라 (슥 4:14)

위에서 기름 발리웠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눅 4:18 참조). 두 감람나무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섰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종임을 나타낸다. 그들이 하는 사명은 성전, 곧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스가랴 시대에 총독 스룹바벨이 성

전을 짓는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 4:9)

예수님의 조상인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으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한 육적
인 역사를 언급하시며, 영적인 섭리를 알려주고 계신다. 이 성
전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로, 하늘 군대, 곧 144,000명의 성도
를 의미한다.

성전이 성도들의 상징임은 사도 바울도 언급한 바가 있다 (고
전 3:16, 엡 2:21-22). 하나님의 목표는 144,000명의 하늘 군
병을 배출해서 마귀 군대와 싸우게 하여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
이다. 그 군대를 완성하는 역사, 곧 마지막 때 추수하는 역사가
바로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다. 스룹바벨은 감람나무의 상징
적 인물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후에야 이런 일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후에 계시록에서,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11:3-5)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셨다. 촛대는 교회, 곧 성도를 의미한다 (계 1:20). 감람나무가 둘이므로,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두 촛대, 곧 두 교회다. 두 교회도 감람나무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이것을 하나님의 책을 보고 알게 되셨고, 믿는 자들에게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드시 감람나무가 나타나 추수하는 일을 마쳐야 마지막이 온다. 마지막 때에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오시게 된다.

7. 감람나무의 상징,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기원전 500년 경, 선지자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감람나무가 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각각 두 감람나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감람나무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두 사람이 하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두 감람나무의 상징적 인물은 항상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야곱,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그들이다.

스가랴서의 여호수아가 당대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은 다음 구절로 알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속 3:9)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있는 돌을 보라고 하셨다. 그 돌에는 일곱 눈이 있다. 이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고, 이 돌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으신 예수님을 뜻한다. 이것은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러 등장했을 때, 일곱 눈을 갖고 계셨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 5:6)

스가랴서의 예언이 있는 지 5백여 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께 일곱 눈을 받으셨다. 그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뜻한다. 따라서 스가랴서에서, 일곱 눈을 가진 돌, 곧 일곱 영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스가랴 당대의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일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5백 년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스가랴서 3장의 여호수아는 감람나무의 상징이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죄악을 하

루에 제하시겠다는 것이다 (속 3:9). 이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 외에는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속 12:10)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속 13:1)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를 씻는 샘이 열릴 것을 보여준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위구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로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 예언을 남기신 것이다. 이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사명을 해야 할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나무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 11:6).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슥 3:7-8)

여호수아, 곧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진다 (슥 3:8). 감람나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 순이 먼저 등장해야 한다 (슥 3:8). 순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죄를 씻을 재료를 준비해야 예표의 사람들, 곧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만들어진다. 이 동료들은 하늘 군병이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도,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일을 완수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슥 3:7).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뜻한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선 하늘 군병들, 곧 그의 동료들을 지휘하는 권세를 받아 그들 중에 왕래하게 된

다 (속 3:7). 감람나무와 그의 동료들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다 (속 3:8). 그 일은 바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람나무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죄를 씻어주셔야 한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속 3:3).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죄를 의미한다 (속 3:4).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기 전에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음부로 갔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곧 음부에서 나왔다 (마 27:53).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8. 감람나무의 상징, 스투바벨

하나님께서서는 또 감람나무의 상징으로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총독 스투바벨을 사용하셨다. 먼저 스가랴서의 스투바벨이 당대의 유다 총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스투바벨은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여 성전을 재건했다. 이것을 상징화하여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보여주셨다. 스투바벨은 산을 평지로 만들고 성전의 기초석을 제공하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하셨다 (스 4:6-7).

산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그러므로 스투바벨을 통해 보여주신 일은 육적인 성전 건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투바벨이 감람나무의 상징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기름 발

린 자, 곧 성령이 함께 하는 자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슌 4:14).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언되었으므로 (계 11:3-4), 이들은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서 감람나무에 대해 설명하는 스가라서 이야기는 당대에 있었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스룹바벨이 내어 놓은 머릿돌은 예수님을 뜻한다 (슌 4:7).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머릿돌이심을 밝히셨다 (마 21:42).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곧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머릿돌로 쓰셨다. 이때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144,000 명의 성도로 이루어진 어린 양의 아내를 뜻한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보여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계 21:9-10).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다.

이 성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지상에 처음 만들도록 하신 것이 바로 모세의 증거 장막이다 (출 25:9).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대상 28:19).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것은 그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계 21:14).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내어놓음으로써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머릿돌이 예수님을 의미하므로, 이 스룹바벨은 스가랴 시대의 유대 총독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등장할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다.

스룹바벨, 곧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은 성전, 즉 어린 양의 아내인 144,000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람나무의 사명은 144,000의 하늘 군병들 중 남은 수를 배출하여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144,000의 하늘 군병은 이미 하나님께서 6천 년 전부터 배출해 오고 계신다. 그 첫 사람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다 (마 23:35). 그리고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감람나무를 세우심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고 계신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산을 평지로 만들었는데, 이 산도 물론 육적인 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성도를 의미하고, 산은 성전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뜻한다.

이와 같은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고 하셨다 (사 41:15). 이 타

작 기계가 하는 일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이다. 무슨 타작 기계가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도 상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타작 기계는 추수할 때 필요한 도구다. 그러므로 야곱은 추수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 곧 감람나무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가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은 죄를 소멸시키는 권세를 뜻한다. 추수,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산, 곧 죄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사명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다 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슥 4:9-10)

스룹바벨의 사명은 바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그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게 된다 (슥 4:10).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하는 일을 보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다 (슥 4:10). 그러나 그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된다 (슥 4:10). 그때 스가랴가 본 순금 등대의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계 4:5),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받으신 일곱 눈으로 상징화 되어 있다 (계 5:6).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땅을 살피며 감람나무의 일을 돕는다 (스 4:10).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림줄을 가지고 다녔는데, 다림 줄은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도구다. 성전이 144,000의 의인을 의미하므로, 이 도구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일은 바로 일곱 눈으로 상징화된 성령이 하는 일이다. 눈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살피는 성령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감람나무와 함께 하며 하늘 군병의 배출을 돕는 것이다.

감람나무는 그 일을 하면서 금 기름을 순금등대에 전달해준다. 이것은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온 금 기름이 금관을 통해 순금 등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스 4:12).

순금등대는 교회, 곧 성도들을 의미한다 (계 1:20 참조). 감람나무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금 기름은 예수님의 보혈, 곧 죄를 씻는 샘물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람나무가 성도들의 죄를 씻어 하늘 군병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낸다.

9. 감람나무의 그림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서는 두 감람나무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화시게 하며,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 11:6)

이것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모세의 일화를 생각나게 한다.

이 예언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두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지, 그들이 감람나무인 것은 아니다.

엘리아

엘리아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세웠다 (왕상 16:31-33, 19:10). 여호와께서는 그 별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셨다.

감람나무도 엘리아처럼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 비는 육적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생명수를 주시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하늘을 닫아 비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세

모세는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도록 하셨으며, 그 후에 모세를 세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드셨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첫 번째가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출 7:20).

감람나무도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모세는 재

양의 차원에서 물을 피로 변화시켜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감람나무는 물을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이 담기게 하여 그 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

모세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감람나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내릴 재앙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된 인류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장차 하늘 군대가 마귀 군대와 싸울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자다. 그러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늘 군대의 그림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것은 장차 감람나무를 통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 군병들을 데려가실 것의 상징이다.

10. 강 좌우의 두 사람과 세마포 입은 자

앞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중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예수님을,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이긴자요 감람나무임을 설명했다.

다니엘서에는 예수님과 두 감람나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언이 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야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5-7)

강물 위에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있고 강 좌우에는 “두 사람”이 서 있다.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에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러자 세마포 입은 자는 하나님께 맹세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끝이 난다고 알려주었다.

강물 위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다. 이 강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강이다 (계 22:1).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예수님임을 다음으로부터 알 수 있다.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강물 위에 있는 자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고 하였다.

이 존재는 마지막 때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르셨던 내용이다 (마 24:36). 그래서 예수님은 막연하게 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으로 말씀하셨다 (마 24:34, 16:28).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으므로, 예수님은 2천 년 동안 오지 못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셨다 (계 5:7). 이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보실 수 없었던 책이다 (계 5:5). 예수님은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조건을 알게 되셨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강물 위에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대해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극비로 감추어두신 이 내용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이다.

강 좌우의 두 사람이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예언 때문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11:3-5)

두 감람나무는 1,260일에 대해 예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1,260일과 같다.

“1,260일”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같은 것임은 계시록에 나와 있다. 1,260일은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는 기간이며 (계 12:6), 이것은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다 (계 12:14). 이것은 또한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와 관련이 있다 (계 13:5). 그 기간에 감람나무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계 11:7), 이때 감람나무만 해를 받는 게 아니

고, 그와 함께 짐승과의 싸움에 나가는 어린 양의 아내인 하늘 군병들도 해를 받는다 (계 13:7-8).

두 사람 중 하나가 1,260일에 대해 답을 받는 것이니,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할 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짐승과 전쟁을 해야 하는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인 것이다.

비록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도, 예수님조차 이것을 알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이어서, 천사도 다니엘에게 감추어두라고 하였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단 12:8-9)

다니엘이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고 천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천사는 그에게 그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해야 할 존재가 감람나무이며, 그가 나타나야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강물 위에 있는 자, 곧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하는 자는 두 명 중에 한 사람이다 (단 12:6). 따라서 1,260일에 대해 알게 되는 자는 두 감람나무 중 둘째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다. 첫 감람나무조차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일반 신학자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계시는 강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강이다 (단 12:7, 슥 13:1, 계 22:1). 강 좌우의 두 사람은 바로 이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서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는 두 사람의 이긴자, 곧 물을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키는 두 감람나무다 (계 21:6-7, 11:6).

11.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역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두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밝혔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감람나무를 나타내신 많은 상징적 사건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감람나무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열매를 거두도록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나누셨지만, 그 일을 야곱 한 사람의 할 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창 12:2).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본래 “아브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창 17:5).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상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으므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세우신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이상 중에 보여주신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창 22:2).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하였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천사가 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일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산 제물로 삼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신 사건이다.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천 년이 지나 솔

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 (대하 3:1). 또 솔로몬으로부터 천 년이 지나,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를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다.

야곱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그림자로 세우신 인물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창 27:30). 그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으므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야곱을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야곱의 의도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뜻이었다 (창 27:10, 13).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었을 때 그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싸웠고, 리브가는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창 25:23).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던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집에 있는 짐승을 잡게 하여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 축복을 받게 하였다. 리브가의 행동은 현명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말 1:2-3).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이 감람나무의 그림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하란의 삼촌 집에 가서 네 명의 아내를 얻어,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며 그들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으며, 그 후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므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강의 지류인 압복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건네 보낸 후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였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천사는 야곱에게 자신을 가도록 놓으라고 하였다. 야곱은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천사는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라고 하며 축복을 해주었다 (창 32:28-29).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이긴자, 곧 감람나무의

상징임을 보여주셨다. 사실 인간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야곱이 감람나무의 상징이므로 그에게 이겼다는 칭호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신 것이다.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은 감람나무의 사명을 나타낸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곧 144,000 명의 하늘 군대를 상징한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처럼, 감람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해야 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그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인 144,000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 군대 144,000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지상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지상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마귀와 싸울 영적 이스라엘, 곧 하늘 군대의 완성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에 의해 완성된다.

12.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창 12: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인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창 15:13-16). 그러나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기독교 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의도를 마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

신 지 4천 년이 지났지만 그 올바른 의미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세상에 알린 인물은 에덴성회의 창시자 이영수 총회장이 유일하다. 그는 1970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며, 이후 3년에 걸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주인공이 누구며,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영수 총회장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그가 바로 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인데, 그 수가 땅의 티끌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창 13:14-17).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실 것이냐고 여쭙고, 또 무엇을 주시든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종들 중에 하나가 그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며,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셀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창 15:1-5).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아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르실 때도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이전에도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약속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데리고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순서와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실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런 내용을 마귀가 알게 되면 훼방을 하기 때문이다.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는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야곱을 낳은 것은 60세 때였다.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보장을 해주실 것인지 질문을 드렸다(창 15:8).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게 즉시 답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제물을 준비하라 하시고 가셨다가 그날 밤에 다시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 15:13-16)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400년 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오게 할 것인데, 그때 그들은 큰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를 벌하시기 위함이다.

아모리 족속은 노아 - 함 - 가나안 - 아모리 족속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보듯이, 가나안의 후손이다 (창 10:15-16). 가나안 족속의 죄를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가나안 족속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필요하셨고, 그 군대를 만드

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 염려할 것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대에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다 (창 47:9).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사를 낳았으며,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 이주까지, 100년, 60년, 130년을 더하여 290년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실제로는 430년이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출애굽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690년이 걸리고, 그 후에 가나안 전쟁이 예정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까지 690년(700년을 의도하셨던 것 같다)은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군대의 배출 기간이다. 이것은 아벨로부터 감람나무가 하늘 군

병의 배출을 마무리 짓는 우리 시대까지 6천 년과 앞으로 그들이 훈련을 하는 1천 년을 합하여 7천 년을 상징하는 기간이다.

7천 년 역사의 상징,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기 위해 청동기 시대인 6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을 택하셨다. 이들은 실제 첫 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아니다.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현생인류라고 하는데, 현생인류는 대략 20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원시시대를 거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지나며 인지가 발달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6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을 택하시며,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이들을 아담의 아들들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중간 과정에서 딱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를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하늘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여 하나님께 여쭙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원시생활을 하던 인류를 보여주셨다. 그들은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사냥을 하였고, 동굴에서 살며 큰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큰 나무로 막았다. 당시 짐승들은 대단히 컸으며 새들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서 날개를 퍼면 8미터가 넘어 보였다.

당시 아담, 하와의 후손이 가인, 아벨만이 아닌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한 데서 알 수 있다 (창 4:14). 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결혼을 하였고, 자기 가족을 위해 성을 쌓았다.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결혼도 불가능하고 또 성을 쌓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 가인으로부터 7천 년의 역사를 정하시고 그 과정을 10분의 일로 축소하여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까지의 과정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6일간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으로 비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후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다. 하나님께서 실제 6일 만에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아니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7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6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만드시는 6천 년을, 안식하신 하루는 앞으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둠으로써 휘방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 군대를 훈련시키는 천 년을 상징한다 (계 20:3 참조).

7수

=

6일 간의 창조 + 하루의 안식

=

6천 년 간 군병의 배출 + 천 년 간의 훈련

천 년 후에 하늘 군대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며, 새 하늘, 새 땅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럼 7천 년의 역사를 약 7백 년으로 축소하여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야곱 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이주가 이루어지고, 애굽에서 4대, 400년간 지내도록 예정되어 있

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7수는 3수와 4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중 3수에 해당하고, 애굽에서의 4대, 4백 년은 4수에 해당한다.

7수

=

3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 4수 (애굽에서의 4대, 4백 년)

하늘의 수, 3

3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늘의 수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3수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출 3:15).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세우신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 곧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 하나님의 상징

이삭 - 예수님의 상징

야곱 - 감람나무의 상징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감람나무도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계 3:21). 여기서 보좌는 권세를 나타낸다. 즉,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하늘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 감람나무도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스 3:7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수 3에 해당하는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이며, 그 상징적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땅의 수, 4

하나님의 섭리에서 땅의 역사를 나타내는 수는 4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애굽에서 4대, 4백 년 간의 종살이였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크게 늘어났고,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들은 장차 영의 세계에서 마귀와 싸울 하늘 군대의 그림자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늘 군대를 만들어내고자 아브라함으로부터 4천 년에 걸친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것의 축소판이 애굽에서의 4백 년인 것이다.

하늘 군대 144,000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각 지파는 각각 12,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 7:5-8). 이들 영적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은 3수와 4수를 곱하여 나온 12수에 의한 것이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12아들을 낳기까지 그를 인도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 즉 감람나무의 그림자다. 감람나무가 하는 일이 곧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즉 144,000의 수를 완성하는 것이다.

144,000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과 12문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계 21:12, 14). 이들은 신, 구약시대 모두의 대표인 24장로에 해당한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12,000스다디온이라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영적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12,000명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계 21:16), 그 성곽이 144규빗이라는 것은 그 성이 144,000의 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계 21:17). 성

안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며 (계 21:22), 144,000의 역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나안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전쟁을 하였다. 이것은 장차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곧 144,000명의 하늘 군대가 영의 세계에서 마귀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할 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 16:16).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 곧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이었다 (창 15:16). 가나안 족속은 온갖 음행을 하며 죄를 지었고, 또한 자식을 불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등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레 18, 20 참조).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귀다 (요 8:44, 계 17:2). 현재 지상에서 인류를 지배하는 존재는 음녀로, 마귀의 수하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그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눅 4:5-7).

이 마귀는 자신이 그 권세를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였

다. 그에게 그 권세를 넘겨준 존재가 바로 대왕 마귀, 사탄이다.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롬 5:12).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하시며 (행 3:21),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생명수 샘물을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하늘 군병의 수를 완성하게 하신 것이다 (계 21:6-7).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음란을 무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은 음녀다. 이 음녀는 음행으로 사람들을 더럽히는데, 그 대상은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을 포함하고 있다 (계 17:1-2). 이것은 육적인 음행 뿐 아니라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를 포함한다. 이 음녀가 앗은 많은 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나타낸다 (계 17:15).

이 음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여 왔는데, 이것을 상징화하여 그들의 피를 마신다고 말한다 (계 17:6).

그런데 그 피로 인해 음녀는 취하게 되고, 하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계 17:16). 이 짐승이 장차 하늘 군대, 곧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144,000과 싸우게 될 존재다 (계 19:19).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 16:16).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땅에서 벌어진 3차 세계대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와 짐승에게 속한 영들 간의 전쟁으로, 앞으로도 천 년 뒤에 영의 세계에서 있을 이야기다 (계 20:1-3). 그때에 지상은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계 6:14).

그 전쟁에서 짐승이 잡혀 불못에 던져지면, 용이 군대를 모아 복수하러 나오게 된다 (계 20:7-8). 그 전쟁에서 마귀 군대를 불로 소멸하고 용을 잡아 불못에 던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계 20:9-10).

그 후에 마귀에게 끌려간 영들을 음부에서 나오게 하여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버림받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계 20:11-15). 이때 하늘 군병들이 권세를 받아 심판을 하게 되며 (계 20:4), 심판 후에 군병들은 왕이 되어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므로 장차 하늘나라에는 144,000 개의 왕국이 만들어진다 (계 22:5).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는 하늘 군병을 만들어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신 가나안 전쟁이다. 상징과 실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 - 하나님

이삭 - 예수님

야곱 - 감람나무

애굽에서의 4대, 400년 - 아브라함으로부터 4천 년 동안 지

상에서 하늘 군대의 배출

애굽에 내린 재앙 -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내릴 재앙

출애굽 -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병들을 데려가심

가나안 전쟁 -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줌 - 144,000에게 왕 권세

를 줌

13. 제2감람나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존재가 감람나무임을 설명했다. 그럼 누가 감람나무인가?

감람나무는 둘이다. 첫 감람나무는 1917년에 태어나 1951년에 기름부음을 받았고, 3년 만에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끝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림받았으며 (창 3:6, 호 6:7),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버림받았다 (삼상 13:11-14, 15:16-23).

제2감람나무는 1942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이영수이다. 예수님은 1951년 첫 감람나무를 택하실 때 이영수에게도 함께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은 그를 어려서부터 역경 속에서 자라게 하며 인생 훈련을 시키셨으며, 1970년에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소개하셨다. 이후 이영수는 3년에 걸쳐 하나님과 예수님의

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1973년에 에덴성회를 세웠다.

이영수 총회장이 감람나무임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가 성경의 비밀을 밝혀왔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도록 되어 있다(계 11:3-4).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1,260일을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1,260일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알면 안 되는 극비사항이어서 지금까지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가 등장했으므로 그 의미가 드러났다. 1,260일은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일을 마치고도 천 년 뒤에 있을 사건을 나타낸다.

감람나무가 추수하는 일을 마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된다. 그리고 천사가 용과 싸워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계 20:3)

천 년 후에 무저갱에서 나온 용은 짐승에게 42달, 곧 1,260일

의 권세를 준다 (계 13:5). 그때 짐승은 감람나무와 싸우고 그들을 죽인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 13:4-5)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계 11:7).

이 말씀에서 보듯이, 감람나무가 증거하는 일이 먼저이고, 42달의 권세를 갖게 될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일이 나중이므로, 짐승이 권세를 갖는 42달, 곧 1,260일은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 될 수 없다.

그럼 1,260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260일은 42달, 3년 반, 심지어 성경 상으로 3일 반과 같다. 이것은 어떤 기간이 아니고, 3.5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3.5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사이의 수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은 하늘의 수로, 예수님께서 30세에 전도를 시작하시고, 3년 뒤에 십자가를 지셨고, 3일 간 무덤에 계셨다. 그 결과 하늘에는 우리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만들

어졌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마 6:10).

4는 땅의 수로, 하나님의 종들이 4와 관련되어 일을 했다. 모세가 40일 간 시내 산에 세 번 올라가 있었고, 40년 간 일을 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대, 400년 간 지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다. 이들은 장차 마귀와 싸울 144,000명의 하늘 군병의 그림자이다. 4수는 이렇게 지상에서 하늘 군대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마 6:10).

3.5는 3과 4의 중간에 있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나타내는 수이다. 그 일은 앞으로 천 년 뒤,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하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60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이영수 총회장뿐이다. 이 설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감람나무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4. 이영수 총회장의 영적 체험

이영수 총회장은 1970년 4월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현하였으며, 이후에 3년에 걸쳐 이상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흘도리로 감람나무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상을 보여주심 받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1974년, 이영수 총회장에게, “네 시대로부터 2,500년 전, 내가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감람나무 역사가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이 본 이상 장면들 중 일부가 그가 쓴 소책자, “이영수 총회장이 본 이상화보집”에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에덴성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ieden.kr>).

이영수 총회장이 본 이상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뵈

것이다. 예수님은 1970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께로 가자.” 하시며 그의 손을 잡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가 지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니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꼭 잡으라고 하셨다. 한참을 지나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제부터 음부를 지난다.”고 하셨다. 이영수 총회장은 음부가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주 밖에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배출하기 위해 임시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귀의 세계도 이 육의 세계 안에 있지 않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또 소멸된 후에도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는 존재한다.

이영수 총회장은 음부를 벗어나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었다. 나중에 적응이 된 후에 눈을 뜨라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었고, 예수님과 네 천사징들이 그 주위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아주 공손한 자세와 말투로, “제가 택한 이긴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영수 총회장을 소개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이영수지? 고개를 들라.” 하시며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만들어질 거룩한 성을 보여주라고 하셨다. 두 천사가 다가와서

그의 팔을 붙들자 순식간에 이동하여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내부를 보게 되었다.



이영수 총회장은 1974년에 한 번 더 여호와와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우주가 방대하여 한 눈에 볼 수 없으니, 이것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며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큰 구슬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이영수 총회장이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수많은 은하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1990년에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상세한 은하계 사진들이 나왔을 때, 그는 그것이 바로 그 구슬

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영수 총회장은 이상 중에 하늘나라를 몇 번 더 보았는데, 1972년에는 세마포를 입은 선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세마포를 입고 있어서 다 비슷하게 보였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이 모세라고 소개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 1974년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설명하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또 1975년에는 큰 원형경기장처럼 생긴 곳에서 144,00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불러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지상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소개해주셨고, 큰 화면에는 지상에서 그 사람이 겪은 장면들이 나타났다. 이 이상은 장차 마귀가 멸망된 후에 있을 것으로, 예수

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시는 장면이다.

이영수 총회장이 겪은 영적 체험 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귀 세계를 본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이 1970년 여호와를 뵈고 난 후, 1971년에 마귀들이 찾아와 그를 괴롭혔다. 그들은 그에게, 예수를 버리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회유했으며,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그를 대왕 마귀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이 놈이 이긴자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대왕님께 데려가자.” 하며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은 그를 대왕 마귀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데, 대왕 마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 좋을 게 없겠다고 생각하여 도망하였다. 그때 마귀들이 쫓아왔는데,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의 몸에서 빛이 비취자 그 빛에 닿은 마귀들은 녹아내렸으며, 나머지는 도망하였다.



그는 1972년에 또 음부에 가서 대왕 마귀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대왕 마귀의 보좌 앞에 있는 향로에서 향연이 올라오며, 목탁소리와 함께 지상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음성이 들렸다. 대왕 마귀는 그 지역을 담당한 마귀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때 대왕 마귀가 그를 보았고, 저 놈이 또 왔다고 소리치며 그를 잡으라고 하였다. 그는 도망하였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뭐냐?”고 하셨고, 그가 손을 보니 작은 망치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치라고 하셨다. 그가 그것으로 마귀를 치니 마귀가 꺾이며 쓰러졌다. 그런데 그 망치 같은 것은 마귀를 때릴 때마다 커졌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들고 있나, 하는 걱정을 하다가 이상에서 깨어났다.

1975년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음부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마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것이 불담이다. 내가 너를 불담으로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마귀 세계를 본 이상들 외에도 그는 많은 내용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고 하셔서 성경을 펴니, 성경 곳곳에 빈곳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가리시기 위해 모든 내용을 다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곳을 들여다보라고 하셨는데, 그가 들여다보니, 그곳에서 감

추어진 내용들이 영상으로 나타났다. 그 감추어진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셨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겠다고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늘 군대가 필요하며, 그 군대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은 죄를 씻는 재료다. 하나님은 그 물을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맡겨주셔서 하늘 군대를 완성하도록 섭리를 정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그 동안 감추었던 내용들을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여러 이상들을 보았다. 그는 예수님께서 20대 초반에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당신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다.

그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궁금하게 여겨 예수님께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양이 많아졌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또 그에게,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 받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



그 외에도 그는 여러 이상 장면들을 보았는데, 그 중 특이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한다. 그는 에덴동산을 보았는데, 그의 생각과 달리 그곳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이 거처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를 보았다. 그는 또 심판하는 장면과 천국, 지옥을 보았다. 현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과 지옥은 마귀 멸망 후에 심판을 거쳐서 만들어지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또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원시생활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는 그 외에 많은 이상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의 책, “이상화보집”에 나와 있다.



15. 하늘 군대

계시록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의 싸움을 보여준다. 흔히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3차 세계대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있을 전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 전쟁은 마귀를 잡기 위한 것으로, 마귀가 영이므로 이 전쟁은 영의 세계에서 영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6천 년에 걸쳐 하늘 군대를 만들고 계신다. 이들은 신, 구약시대에 만들어지며, 주로 순교자들로 구성된 144,000명의 성도들이다.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 후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 구원 받는 자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늘 군대의 구성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후로 인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마귀가 자기 세계인 음부로 끌고 간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말한다 (계 6:8).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요일 3:8, 롬 5:12), 그의 후손들은 그 죄가 유전되므로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순교자들도 죽음 후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

그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생명수 샘물을 만드셨다 (슥 13:1).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음부에 가 있던 영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마태에게 이상 중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마 27:52-53).

이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언제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시느냐고 여쭙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6:9-11)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바로 마태가 이상 중에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본 구약시대 성도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순교한 것이다. 또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이다. 저희의 가진 증거는 “예수의 증거”, 곧 성령을 의미한다 (계 19:1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요 14:16).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증거라고 불린다. 순교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 수가 144,000이다. 그 수가 찬 이후의 장면이 다음에 나온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1)

이들은 신, 구약시대 성도들이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를 채우는 역사가 성경에 마지막 때 추수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 14:14-16)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제2감람나무를 의미한다. 마지막 때에 군병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마 24:30-31).

그러므로 하늘 군대는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6천 년 전 가인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배출하신 성도들이고, 둘째는 2천 년 전부터 감람나무가 등장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배출하신 신약시대 성도들이며, 마지막으로 감람나무에 의해 배출되는 성도들이다.

천 년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천사가 마귀 세력을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휘방하지 못하게 한다 (계 20:1-3).

흔히 천 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오해 때문이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4-6)

이들이 남들보다 먼저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천 년 동안은 순교자들로 구성된 144,000 외에는 살지 못하므로 그들이 다스릴 백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아니다. 이들이 왕 노릇하는 것은 마귀가 멸망되고 심판이 끝난 후다.

계시록 20장 1-3절은 천 년 전에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는

이야기이고, 4-6절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 후에 있을 심판 장면이며, 7-10절은 천 년 후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를 잡는 전쟁 장면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가리기 위해서 사건을 순서대로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들이 사건 순서대로인 것으로 오해해서 4-6절 이야기가 천 년 동안의 사건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의 생각

1-3절: 천 년 전 사건

4-6절: 천 년 동안의 사건

7-10절: 천 년 후 사건

실제 순서

1-3절: 천 년 전 사건

4-6절: 마귀 멸망 후 심판하는 장면

7-10절: 천 년 후 사건

계시록은 마귀를 잡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마귀가 그 내용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대부분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면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로 이긴자,

감람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계 2:17), 감람나무가 당신의 증인으로서 예언을 하도록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다 (계 11:3-6).

이긴자 외에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명은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추수하는 역사다. 하늘 군병들은 그 천 년 동안 장차 마귀와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그 동안 마귀가 꾀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안식한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하루를 쉬었다고 하신 것이 이것이다. 6일은 6천 년 동안 하늘 군대를 만드시는 것을 상징하고, 하루는 천 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는 것을 상징한다.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6천 년 끝에 하늘 군대를 완성할 것을 나타낸다.

42달

천 년이 지나고 무저갱에서 풀려난 용이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준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 13:4-5)

42달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3년 반 또는 3일 반과 같고, 3.5라는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의 가운데에서 두 수가 합하여 완전수 7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마귀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장차 천 년 후에 짐승이 하늘 군대와 싸워 감람나무를 죽이고 하늘 군대를 짓밟는 사건을 나타낸다 (계 11:7, 13:7). 짐승은 이 기간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 성도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다 (계 13:8).

42달 이후

이렇게 하늘 군대가 짐승에게 패한 상태로 끝이 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와 하늘 군대를 회복시키신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감람나무는 3일 반, 즉 3년 반 후에 부활하게 된다 (계 11:11-12). 짐승에게 패한 성도들도 42달 후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계 15:2). 다시 전력을 정비한 하늘 군병들은 예수님과 함께 짐승을 잡기 위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짐승을 불못에 던짐

하늘 군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린다. 이들은 옳은 행실을 한 결과로 세마포를 입게 된다 (계 19:7-8).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는 짐승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 (계 19:14).

그 전쟁에서 예수님과 하늘 군병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던진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 19:19-21)

사탄을 불못에 던짐

짐승이 잡히고 나면 사탄이 직접 하늘 군대와 싸우러 나온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

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7-10)

여기에서는 천 년 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과 싸운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42달이 있고, 그 후에 짐승을 잡는 전쟁이 생략되어 있다. 그 후에 사탄이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잡힌 후에 불못에 던져질 때는 이미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심판 권세

하늘 군병들은 사탄을 잡는 전쟁 후에 심판 권세를 받는다 (계 20:4). 마귀가 잡히고 나면 마귀 세계인 음부로 끌려간 모든 영들을 나오게 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계 20:11)

사람들은 여기 흰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앞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하늘 군병들, 곧 순교자들이 심판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았다 (계 20:4). 이 장면은 심판하는 144,000군데 중에 한 곳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흰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존재는 하늘 군병들 중 하나다.

각각의 심판관은 책들과 한 권의 생명책을 받는다 (계 20:12). 생명책에는 구원 받을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책들에는 구원 받지 못할 자들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자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책은, 심판을 하는 하늘 군병들이 한 권씩 갖게 되므로, 모두 144,000권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르다. 하늘 군병의 이름이 기록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한 권이고, 그곳에 기록되는 자들은 144,0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늘 군병들은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각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 심판에서 버림받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계 20:15). 불못에 던져지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핍박이 무서워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말한다. 믿지 않는 자들이란 복음을 전해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 그 나머지는 악을 행한 자들이다. 여기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은 심판 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왕과 제사장 권세

심판 때 구원 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군병이 144,000명이므로, 천국은 144,000군대의 왕국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3-5)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하늘 군병들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계 14:1 참고). 이들은 평소에는 자기 왕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16. 사망과 부활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부활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사망

먼저, 성경에서는 육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잔다”고 말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단 12:2)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

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 지라 (요 11:11-13)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육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뜻한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첫째 사망이다. 그의 후손은 모두 이 사망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 (마 8:21-22)

아담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영은 마귀가 다스리는 음부로 끌려간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 (계 20:13).

이렇게 하나님께 쫓겨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며 죽음 이후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고전 15:20).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추수를 할 때 첫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레 23:10-11). 그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로, 예수님은 그 날에 부활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육의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사도 바울도 부활은 영의 몸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 15:42-44)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 밖에 있으며, 영들이 사는 곳이다. 그곳은 육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여서, 제자들이 당신을 귀신으로 알까봐 육을 가지신 것처럼 행동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36-39)

그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등장하셨다. 이것은 그가 육을 가지신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마리아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 20:14-15)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을 갖기 이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처형되시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으나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은 육으로 계

셨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놀라자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눅 24:30-31)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과 과거 육의 몸을 자유자재로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신적인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육을 갖기 전의 몸이며, 그 몸은 육의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미 구약성경에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그가 사람인 것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고 천사인 것을 알게 된 예들이 있다 (삿 6:21-22, 13:20-21).

첫째 부활

첫째 사망, 곧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서 남들보다 먼저 벗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

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4-5)

이렇게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하늘 군병들이다. 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다시 육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은 장차 마귀와 싸울 군병들로, 마귀가 영이므로 이들도 영이다. 부활은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군병의 수는 144,000명이다. 6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바로 이 군대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 수가 차야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계 6:9-11).

그 수가 차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 산에 서게 된다 (계 14:1). 이 시온 산은 육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군병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되며, 예수님은 그곳을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시온 산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이유는 시온산이 사도 요한에게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가리시기 위해 영의 이야기를 육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인을 맞는다고 말한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 7:4)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모두 144,000명이다. 인 맞은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은 각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9-10)

이들이 하늘 군병들이다. 그러므로 인 맞은 자들이 배출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다.

또 인 맞은 자들이 144,000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늘 군병이 되는 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곧 구약시대 성도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곧 신약시대 성도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한 시대에 배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에게 인 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인 치는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1-3)

마지막 때 인 치는 역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것이 감람나무 역사다. 감람나무가 인을 치는 역사를 할 때, 4대강국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 4대강국은 현재 감람나무가 인을 치는 역사를 하는 한국을 에워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다. 마귀는 이 나라들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네 천사들이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남한과 북한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일어날 뻔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바람이 불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천사가 감람나무와 함께 인을 치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인치는 천사와 지상에서 일을 하는 감람나무를 의미한다.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

하늘 군대가 완성되면 천 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이들은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계 20:2-3).

천 년 뒤에 마귀를 멸망시키고 나면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영들을 나오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한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이때 어떤 영은 영생에, 어떤 영은 영벌에 들어간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 25:46)

이때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한다. 이 심판에서 구원 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3-15)

이때 하늘 군병들은 왕이 되어 천국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린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5)

심판 후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우리가 눈으
로 보는 육의 세계는 소멸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
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사 34:4)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7)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
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서 옮기우매 (계 6:12-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
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세상은 영들을 위한 곳이다. 육의 세

계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울 군대를 배출하기 위해 임시로 만드신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는 번식이 없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손을 낳게 하신 것이다.

새 세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인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심으로, 더 이상 영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실 것이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10)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사 66:24)

17. 천국과 지옥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구원 받은 자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고, 음부다. 천국과 지옥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만들어진다. 음부, 천국, 지옥에 대해 알아보자.

음부

지옥과 흔히 혼동하는 것이 음부다. 그런데 심판 때 음부를 불못(지옥으로 알고 있는 것)에 던지므로, 음부가 지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4)

음부는 히브리어의 “스올”, 헬라어의 “하데스”를 번역한 것인

데, 원 의미는 무덤이다. 죽어서 육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은 영의 세계인 음부로 끌려간다. 영이 끌려가는 마귀 세계를 하나님께서 무덤, 곧 음부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계 6:8)

그래서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3)

음부는 마귀 세계를 말한다. 왜 죽은 자들이 음부로 끌려가는가?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그것을 밝혔다 (눅 4:5-7).

그 마귀는 누군가에게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며, 예수님에게, 자기 부하가 되면 그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그에게 그 권세를 준 존재가 사탄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사탄이 그 권세를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마귀와 싸울 군병이 필요해서였다. 마귀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람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려

고 범죄케 한 것이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 서는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일 3:8). 쫓겨난 아담은 마귀가 데려갔고, 그를 다스리게 된 것이다.

바울은 낙원, 곧 에덴동산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고후 12:2-4)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우주고, 둘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마귀 세계, 곧 음부고, 셋째 하늘은 음부를 벗어나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다.

둘째 하늘이 음부임을 밝힌 것은 역사상 이영수 총회장뿐이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뵈러 갔었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음부를 지난다.”고 하셔서 그도 음부가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귀가 가진 공중 권세라고 부른다 (엡 2:2).

하늘의 지성소

그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은 없는가? 물론, 아닙니다. 하늘 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지성소로 간다. 그 상징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치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셨느니라 (히 6:19-20)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 6:9)

이들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9-10)

이들은 하늘 군병들로, 그 수는 144,000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1)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6천 년 동안 그 수를 채우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켜야 음부로 끌려간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에 갈 자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하늘군병들이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 후에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된다 (계 20:4, 22:5).

천국

천국은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세계에 만들어진다.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사 34:4, 계 6:14).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 (사 65:17, 계 21:1).

새 하늘은 심판 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새 땅은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 땅이 있다고 해서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 15:44)

육의 몸이 사는 땅이 현재의 우주고, 신령한 몸이 사는 땅이 앞으로 만들어질 천국이다. 천국은 144,000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진다. 하늘 군병 144,000이 영원한 왕이 되기 때문이다.

지옥

흔히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마귀가 다스리는 곳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지옥은 장차 하나님께서 마귀를 벌하실 곳이다.

사실 지옥(땅 속에 있는 감옥)이란 개념의 표현은 성경에 없다.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불교의 영향으로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하였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것을 차용한 것이다. 헬라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을 음역한 것이다. 이것은 힌놈의 골짜기(“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불 태워 우상인 몰렉에게 바쳤다 (렘 7:31).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저주하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렘 19:6)

예수님도 이곳을 불로 벌 주실 장소로 말씀하셨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 9:43)

이 지옥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자들은 마귀의 수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며, 이후에 사탄도 그곳에 던져진다 (계 19:20, 20:10).

마귀가 멸망 받은 후에,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다.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5)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

18. 글을 마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늘 의심을 받는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기 원할 것이다. 역사상 수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 왔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선택된 자임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지 병을 고친다거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입장도 이와 같았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하늘로서 온 존재임을 알기 원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의 바람은 그가 로마 제

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멸망시켜야 한다.

성경의 핵심은 사람들에게도, 마귀에게도 가려져 있다. 마귀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야 할 존재에게만 그 내용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영수 총회장은 1973년에 에덴성회를 세우며 제2감람나무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1974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까지 16권의 설교집을 출간했다. 그 안에는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알려주는 그 섭리는 기존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가 아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후에 그 섭리에 적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영수의
이상(異像) 화보집



한국기독교예언성회

“이영수의 이상화보집”은 이영수 총회장의 영적 체험을 소개하는 자료다. 이영수 총회장은 1970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고 사명을 받았으며, 이후 3년에 걸쳐 이상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1973년에 에덴성회를 창시하고 제2감람나무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두 감람나무는 2,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인물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고 나서야 이에 대해 알게 되셨으며, 이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

제2감람나무는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추수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인물이다.

이 책은 에덴성회 홈페이지 (<http://ieden.kr>)에서 볼 수 있다.